

틈 슨

대역한 영성경

한영대역 · 단어분석 · 영문주해

THOMPSON ENGLISH-KOREAN
STUDY BIBLE

간행사

매우 오랫동안 언어는 단순히 사물과 사상을 표시하고 나타내는 수단이라고만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역으로 언어가 인간 사고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 창출시키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언어와 인간의 사고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창조 기사를 숙고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 만물 중에서 다만 인간과 천사만이 처음부터 언어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능력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창조 직후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언어 행위를 통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직후 여타 지·정·의적인 요소의 변질과 아울러 인간의 언어도 그 순수성을 잃게 된 사실, 특히 창세기 기자가 보고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 혼돈의 의미를 현대의 우리는 더욱 되짚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 오고 올 세대를 구원하시고 또 당신과 교재할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주신 성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어 행위라 하겠습니까. 그 후 히브리와 헬라 원어로 주신 원전이 숭한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역본이 된 것입니다. 각종 역본은 물론 각자가 모두 성경을 번역한다는 엄숙한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모두 성경의 정경성을 계승하기는 하였으나 각 언어의 구조적 차이, 표현의 한계, 어휘 선택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동시에 여러 언어로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비교 언어 연구의 차원을 넘어서 각 언어의 비교를 통한 성경의 새롭고도 미묘한 의미를 재삼 깨닫게 되는 값진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회는 먼저 현대 한국 교회와 가장 친숙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비교, 연구하기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영어 성경이라도 수십종에 이르는 역본이 있어서 역본 선정에 고심하였는 바, 각계의 자문을 얻어 흠정역(Authorized Version)인 KJV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KJV는 현대의 역본이 지니지 못한 그윽하고 높은 문학적 향취와 영미 문화사에 기여한 전통적 권위, 그리고 신학적 정통성과 아울러 한글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KJV가 중요 원전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17C경에 기록된 KJV의 영어를 낯설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미 문화권에서는 공식 예배용 성경으로 거의 모든 교회가 KJV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KJV 영어의 현대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한국 성도들에게도 본서에 게재된 「KJV 이해편」의 몇몇의 동사변화 어미, 대명사 변화등만 기억해 두면 KJV 영문 이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KJV 영어는 언어학상 초기 현대 영어로 분류되는바 현대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아무런 무리없이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 성경은 본문 하단 각주 부분에서 NIV, TEV, LB, RSV, NASB, JB 등 주요 영어 역본과 KJV의 미묘한 차이점을 상세히 풀이하였으며, 측주부분에서 각 단어들을 철저히 분석, 연구하였는 바, 그 이해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문학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KJV를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피상적인 영어 이해를 극복한 영어의 진수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하여 성경 본문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헌신한 많은 분들 특히 영문 해설을 감수해 주신 최중수, 유성덕, 조신권 세분 박사님과 개역 성경 전문 인용을 허락해 주신 대한 성서 공회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서의 발간이 한국 교회의 성경 이해에 심도를 더하는 역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서 머릿말을 마칩니다.



1989년 2월 2일

발행인 강 병 도

본 성경은 한영 대조 주해 성경을 목적으로 해외 및 국내의 직·간접 자료를 편집·구성한 대역 해설 스터디 바이블로서 개역 성경 본문은 대한 성서 공회의 승인을 받아 전문 인용하였음.

기 독 지 혜 사

통슨성경 편찬위원회 펴냄

KJV의 이해

I. KJV번역과정과 그 배경

영어성경	연 대	만든 이	내용 및 특성	비 고
Wycliff's Version (Lollard Bible)	1384	John Wycliff와 그의 추종자들	생소한 문체 때문에 널리 읽히지는 못했지만, 성직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성경을 일반 대중들도 직접 읽을 권리가 있다고 계몽한 점과 후대 성경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1382년 공포. 별게이트역을 대본으로 사용.
Tyndale's Version	1525-1535	William Tyndale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 원전에서 일반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문체로 신약성경(완역)과 구약 일부 번역.	루터의 이단을 조장하고 이를 발전시킨 '그릇된 번역본'이라는 이유로 불태워짐. KJV의 모체가 됨.
Coverdale's Version	1535	Miles Coverdale	우미(優美)하고 음악적인, 즉 여성적인 스타일이 나타남. 여러 가지 어구들을 창안하고 표현을 다듬는데 기여.	영어로 인쇄된 최초의 영역 성경.
Matthew's Bible	1537	John Rogers	Tyndale's Version의 2/3와 Coverdale's Bible의 1/3이 합쳐져 편집.	Cranmer 대주교의 요청에 의해 왕의 인가를 받게 된 최초의 공인 영어 성경.
Taverner's Bible	1539	Richard Taverner	Matthew's Bible의 개정본. 성경전서를 구입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낱권씩 사서 볼 수 있게끔 부분별로도 발행.	
The Great Bible	1539	Coverdale	Matthew's Bible과 자신이 직접 번역한 에스라에서 말라기까지의 구약성경, 개정한 의경 등을 합하여 만든 성경.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용되도록 지정받은 성경으로 모든 교회에 한 권씩 비치하도록 명령.
Geneva Bible	1557 (신약) 1560 (구약)	일단의 칼빈 추종자들	영국을 다시 로마교황의 지배 아래 두려웠던 메어리 여왕의 통치로 인해 제네바로 피신했던 자들이, Tyndale의 신약과 The Great Bible의 구약을 개정하여 출판. 삼시간에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퍼짐.	세익스피어 문학 활동에 사용.
The Bishop's Bible	1568	주교들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여 성경 번역과 보급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후, Geneva Bible이 칼빈적 색채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교 자신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게 된 성경.	
King James Version (Authorized Version)	1611	54명의 왕실 작가들	1603년 제임스 II세가 한 회의석상에서, 당시 사용되고 있던 성경은 오역이 많아 원전의 의미를 바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본이 필요하다는 John Reynold의 진언을 받아들여 만든 성경.	한번도 교회나 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어떤 권위자가 인정한 것 이상으로 공인 되어 영국인들에게 널리 보급됨.

1380년 최초의 영역 성경인 Wycliff's Version의 등장으로 이트(Vulgate) 성경이 공식 예배에서만 사용 되었다. 그러나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예배에서 사용 길고도 복잡한 고난의 여정이었다. 영어 성경이 나오기 되는 성경의 내용을 읽을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이에 전, 영국에서는 '고대 라틴어(Old Latin) 성경'과 '별게 점차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긴요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歷史)는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KJV의 기본 번역 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이 지침은 KJV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1. 가능한 대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문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2. 전통적인 교회 용어들은 그대로 유지할 것. 즉, 단어 'church'를 'congregation'으로 번역하지 말것.
3.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원전의 내용을 충분히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들을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난의의 주들을 달지 말것.

II. KJV영어와 현대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 1600년대 초에 완성된 KJV 영어는 다소 낯선 느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장에서 정리한 인칭 대명사의 형태와 몇몇 동사의 어형 변화를 숙지한다면 "영어 산문이 낡은 가장 뛰어난 불후의 저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KJV를 이해하는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1. 인칭 대명사

① 원래 중세 영어의 2인칭 대명사는 아래와 같이 단·복수의 형태가 달랐다.

	주 격	목적격	소유 격	소유대명사
단 수	thou	thee	thy/thine	thine
복 수	ye	you	your	yours

그러나 먼저 복수·주격의 ye가 경어적 뉴앙스를 띠고 단수를 대치하기 시작하였고, 차차 2인칭의 모든 격에서 복수가 단수를 대치하기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you만 남게 되었다.

② 1인칭 단수와 2인칭 단수에서는 소유대명사가 소유격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했다.

그외의 사항은 현대 영어와 동일하며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 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단 수	1인칭	I	my/mine	me	mine
	2인칭	thou	thy/thine	thee	thine
	3인칭	he, she	his, her	him, her	his, hers
복 수	1인칭	we	ours	us	ours
	2인칭	ye	your	you	yours
	3인칭	they	their	them	theirs

2.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조동사 변화는 아래에서 정리한 단수 2,3인칭의 어형 변화이외에는 모두 현대 영

어와 동일하다.

현대 영어	인 칭	현 재	과 거
will	thou	wilt	wouldest, (wouldst)
shall	thou	shalt	shouldest, (shouldst)
have	thou	hast	hadst
	he, she	hath	∕
do	thou	doest, doest	didst
	he, she	doeth, doth	∕
can	thou	canst	couldest, (couldst)
may	thou	mayest, mayst	mightest

3. 동사의 직설법·2인칭·단수·현재및 과거의 어미로 -(e)st가 사용되었다.

ex) prayest, shouldest, oughtest

4. 직설법·3인칭·단수·현재의 어미는 -(e)th만 사용되고 -es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ex) 현대영어; she goes to school by bus.

KJV 녹 11: 15; He casteth out devils.

5. be동사의 경우 2인칭일 때에만 변형된 형태가 사용되었는데 직설법 현재는 thou art, 직설법 과거는 thou wert가 그 예이다.

6. know의 고어형 wit의 어형변화는 아래와 같다.

I, he wot-wist-wist
thou wottest-wist-wist

단 부정사의 형태로 쓰일 때는 인칭에 상관없이 wit의 형태로 쓰였다.

7. KJV에서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어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있으나 각각의 설명은 해당 측주 난을 통하여 하였다. 아래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비교적 많이 쓰인 동사들의 불규칙 변화형을 현대 영어와 병기하여 정리하였다(이탤릭체가 고어형임).

beget-begot, *begat*-begotten, begot
 break-broke, *brake*-broken, broke
 build-built, *buildd*-built, *buildd*
 climb-climbed, *clomb*-climbed, *clomb*
 drink-drank, *drunk*-drunk, *drunken*
 drive-drove, *drave*-driven
 forget-forgot, *forгат*-forgotten, *forгат*
 grind-ground, *grinded*-ground, *grinded*
 help-helped, *holp*-helped, *holpen*
 melt-melted-melted, *molten*
 shear-sheared, *shore*-sheared, *shorn*

slip—slipped, *slipt*—slipped
 speak—spoke, *spake*—spoken, *spoke*
 stay—stayed, *staid*—stayed, *staid*
 swear—swore, *sware*—sworn
 weave—wove, *waved*—woven, wove
 work—worked, *wrought*—worked, *wrought*

Ⅲ. KJV와 영미문화

1. 영어 영문학적 공헌

알다시피 한 나라의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에 따라 늘 변형하는 사회적 생명체이다. 특히 영어는 유럽대륙과 떨어진 섬나라의 언어로서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뚜렷하게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온 언어이다. 현대에 이르러 영어는 가히 세계 제1언어의 왕좌를 석권했지만 기실은 자기 모국에서조차 천대를 받아오다가 14세기에 이르러서야 사회 전 계층이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어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현대 영어로서의 모체를 성립하게 된 것이다.

한편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유럽 전역에서 자국어로 된 성경을 요구하는 민중의 소망에 부응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성경은 곧 민중의 언어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KJV도 마찬가지여서 다음과 같은 세 방향에서 큰 공헌을 영어발달사에 끼쳤다.

- ① 각단어의 뜻의 통일.
- ② 세련된 문장의 국민적 유포.
- ③ 표준어 정착의 강력한 매개수단.

아울러 민중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된 성경은 일부 소수 지식층만이 성경을 접하던 중세와는 달리 새로이 전개되는 대중 문화 시대에 특히 작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주관, 주제, 문체 등 제반 문헌적 상상력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성경은 영문학사를 장식하는 위대한 시인들인 William Shakespeare, John Milton, Robert Browning, Alfred Tennyson 등과 산문 문학의 John Bunyan, John Ruskin, Thomas Hardy 등에게 문학의 절대적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현대에도 그가 기독교를 믿진 안믿진 간에 영미의 문학가는 성경을 모르고는 문학 활동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은 이미 성경 자체가 가장 위대한 문학의 극치이며 나아가 서구 사상의 근원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영미 문화권에 결정적으로 정착시킨 역본이 바로 KJV였던 것이다.

2. 교육, 정신 문화의 지주

물론 한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다 기계적으로 하나의 가치관이나 우주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회에는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게 마련이다. 이는 극도로 다극화된 현대 사회보다도 비교적 단순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던 20세기 이전 사회에 더욱

더 명백하게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 물론 러시아 및 유럽 전체가 A.D.313년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 이래 기독교 문화권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KJV발간으로 이 지역이 새삼 기독교 문화화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러나 중세 이전에는 비록 기독교 문화가 지배층에서부터 사회의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질적 수준에서는 미미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KJV 및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모국어 성경 보급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고대의 유물로 매도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정신문화의 주춧돌로서 사회에 공헌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각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된 KJV 등의 성경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더욱 더 선교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성경은 서구의 교육사상의 축으로서 오랫동안 서구문화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율법주의적이고 부정적인 기독교 사상과 윤리는 더 이상 인류 문화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성경 자체가 율법주의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며 과거의 기독교가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일부 측면들 때문이다. 또 기실 그들이 율법주의라고 매도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이 서구 문명의 윤리성을 지켜왔던 측면도 새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이야 어찌됐든 과거 영미 문화가 KJV 등으로 대변되는 기독교적 영향 아래서 교육을 도모해 왔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현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한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의 참뜻을 현대에도 되살려 기독교 문화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잘살게 하는데 공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성경 통일의 지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은 원래 단 1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직접 계시하신 원어 성경 상태로 그 무오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각 사본과 역본은 간접적 정통성을 원전에 의지하여 부여 받을 뿐이다. 그리하여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分派)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KJV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점에 있어서 KJV의 공헌은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KJV는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KJV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4. 새로운 성경 번역의 자극제와 기준

KJV는 세계 만인이 인정하는 우수한 번역이다. 그러나 언어란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기고 또 원전의 문체, 어의, 신학적 구조와 사상을 더욱 명료히 하는 의미에서도

새로운 번역은 요청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KJV는 끼쳐 온 우수한 역본이다.

역으로 공헌하고 있다. 즉 KJV는 수백년동안 현재까지도 권위있는 번역본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각 번역자들에게 성경 번역 사업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동시에 그 기준으로서도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교회의 현실만 대비해 보아도 이해가 갈 것이다. 현재의 한글 개역성경도 1백년의 선교사에서 수차례의 질고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그동안 한국 사회 전체에 지대한 공헌을

그러기에 동시에 더욱 정확하고 더욱 아름다운 성경 번역이 요청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글 개역 성경이 절대 완전한 역본은 아니므로 더욱 더 훌륭한 새로운 역본이 요청되는 것이고 또 번역자들은 KJV같이 우수한 역본이 그토록 큰 공헌을 한 것을 기억하며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하지만 큰 의욕으로 성경 개역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다.